

간세포암 환자에서 흉골 하부 골 전이로 오인된 원발성 흉골 농양 1 예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구리병원 내과학교실

*송성현 · 손주현 · 조현석 · 변태준 · 김태업 · 은창수 · 전용철 · 한동수

서론 : 흉골 농양은 심장수술, 외상 후나 약물 복용자에서 주로 발생하며, 간세포암과의 연관성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외과적인 배농술과 항생제 치료로 호전될 수 있는 질환이다. 간세포암에서의 골전이도 드문 경우로 특히, 흉골 전이는 매우 드문 경우로 알려져 있고, 예후는 극히 불량하다. 이에 저자들은 간세포암 환자에서 경과 관찰 중 시행된 영상 의학 검사에서 흉골 전이를 시사하는 상태에서 절제 생검술 시행 후 원발성 흉골 농양으로 판명되어 치료 후 호전된 1례를 보고하는 바이다. **중례 :** 58세 남자 환자가 내원 2개월 전부터 서서히 증가한 흉골 하부 종양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16년 전 만성 B형 간염 진단, 5년 전 당뇨 진단 후 경구혈당강화제로 조절되고 있는 상태였고, 2년 전 간경변증 및 간세포암 진단 후 1차 고주파 소작술, 4차 간동맥화학색전술을 시행받았다. 내원 당시 간세포암의 병기는 TNM 병기는 T3N0M0로 stage III, modified JIS score는 3점이었다. 환자는 발열과 오한은 호소하지 않았고, 종양 부위 압통은 경도로 관찰되었다. 흉부 단층 촬영 검사에서 흉골 하부에 약 4.5cm 크기로 조영 증강 되는 골 파괴 소견으로 간세포암의 전이를 시사하였고, 골 주사 검사에서도 골 흡수 증가로 간세포암의 골 전이를 시사하였다. 골 전이 가능성 부위에 대해서 절제 생검술을 시행하였고, 병리검사에서 만성 골수염을 동반한 흉벽 농양으로 판명되었다. 농배양 검사에서 Escherichia coli가 동정되었고, 항생제 치료와 함께 광범위 절제술, 배농술 및 대흉근 피판술 시행 후 병변 호전되어 현재 외래 추적 관찰 중이다.



원인이 없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에서 발생한 원발성 간세포암 예1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강동성심병원 소화기센터, 병리학 교실

*조현정 · 이상호 · 장지선 · 김형수 · 신운건 · 이진현 · 김학양 · 장영국

배경 :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이하 NAFLD)은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등 대사성 원인에 의한 간내 지방 축적으로 만성 간손상이 일어나는 질환이다. 지방산과 유리 산소 등에 의해 간염, 간섬유화 및 간경변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간세포암과의 인과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연자들은 만성 간질환의 원인이 없는 NAFLD 환자에서 원발성 간세포암이 발생한 예를 경험하고 이를 보고한다. **중례 :** 72세 여자로 4년 전부터 고혈압과 골다공증에 대해 칼슘길항제 및 칼슘, 비타민D를 복용하는 것 외에 음주력이나 한약 복용력은 전혀 없었다. 개인의원에서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복부 CT에서 우연히 종괴가 발견되어 전원되었다. 내원 당시 체질량지수(BMI) 22.8 kg/m²(키53.5kg, 몸무게153.5 cm) 으로 비만하지 않았고, 혈액 검사는 모두 정상이었다(혈소판 164000 /mm³, 프로트롬빈 시간 11.7 초, 공복 혈당 95 mg/dL, AST/ALT 40/29 IU/L, 총 빌리루빈 1.2 mg/L, 알부민 3.8mg/dL). 수술전 시행한 15분 indocyanine green 정체율은 8.9 %로 정상이었고, 종양 표지자 검사도 정상이었다(알파 태아 단백 5.65 단위, PIVKA-2 32 단위). HBsAg/anti-HBs, HBeAg/anti-HBe, IgG/M anti-HBc 및 Anti-HCV 등의 바이러스 표지자와 HBV-DNA, HCV-RNA 및 자가 면역 항체도 모두 음성이었다. 복부 CT에서 6번 분절에 동맥기에 조기 조영되는 직경 3cm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었고, 이외에는 특이 소견이 없었다. 간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종괴는 피막으로 둘러싸인 Edmonson-Steiner grade 3의 간세포암으로 확인되었다. 주위의 간조직은 중증도의 염증소견과 30% 이상의 심한 지방 변성을 보였으며, 환자는 수술후 합병증없이 회복되어 퇴원하였다. **요약 :** 음주, 만성 바이러스 간염, 자가 면역성 간염, 당뇨병 및 비만 등 만성 간질환의 원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NAFLD와 이로 인해진 원발성 간세포암이 발생할 수 있다.